

2/28/21

설교 제목: 요셉과 형들의 재회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42 장 1-38 절

(1)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2)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3)요셉의 형 십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4)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5)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6)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7)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9)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곧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10)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11)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12)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13)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십 이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14)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15)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 (16)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 (17)그들을 다 함께 삼일을 가두었더라
- (18)삼일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 (19)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 (20)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 (21)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 (22)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 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 (23)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 (24)요셉이 그들을 떠나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 (25)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 (26)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 (27)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 (28)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 (29)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 (30)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 (31)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 (32)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십 이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33)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34)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35)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36)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37)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38)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애굽 일대에 불어 닦친 흉년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심각한 기근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먹을 양식이 떨어져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고 거기서 뜻밖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아우 요셉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아우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 은 20 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겼던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요셉과도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기근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여 후에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요셉과 형들이 재회하는 장면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으로 인해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애굽에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1)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2)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 말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재차 한 것으로 보아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가기를 꺼렸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집안에 양식이 떨어져 처자식들이 당장 굶어 죽게 생겼음에도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기를 꺼린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22년전 질투심에 아우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다 잊어버린 듯 싶었으나 그 사건은 마음 속에 지울 수 없는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들에게 애굽은 가까이 가기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지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죄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온 식구들이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3)요셉의 형 십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4)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던더라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베냐민은 자신이 끔찍이도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 난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은 첫째 요셉을 낳고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냐민은 사랑하는 아내의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아들입니다.

더구나 야곱이 베냐민 만큼이나 사랑했던 그의 한 배 형제 요셉은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만은 꼭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사전수전 다 겪은 야곱이 말은 하지 않았으나 요셉의 죽음과 관련하여 형제들을 의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야곱의 열 아들이 애굽에 도착하여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5)이스라엘의 아들이 양식 사러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6)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7)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22년 전 꾀 꿈이 생각나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22년전 형들의 곡식 단이 자신의 곡식 단에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꾀 후 그 꿈들을 형들에게 말하였다가 미움을 받고 애굽까지 팔려 왔습니다.

(37:6)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꾀 꿈을 들으시오

(37:7)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37:8)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37:9)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꾀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런데 이 꿈이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 앞에 나아와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바라보며 이 꿈들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습니다. 이 꿈을 꾸었을 당시 요셉은 이 꿈이 자신이 형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 형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형들의 생명을 구하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형들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끼어 양식을 사고자 했을 때 바로 형들을 알아 보았고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주저없이 실행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그들을 애굽을 엿보러 온 정탐꾼으로 몰아 세웠습니다.

(9)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꾀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10)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11)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12)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22 년 전 일을 가지고 형들을 보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운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번 흉년이 금방 끝나지 않고 7 년이나 계속 될 것이라는 것과 그러기에 형들이 지금 양식을 사간다고 해도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형들은 자신 앞에서 잘못을 빌고 양식을 받아가긴 하겠지만 또 다시 양식을 구하러 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서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들의 과거 행적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와 형제들은 모두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로부터 아직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지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은 잘 있는지 등등 그동안 궁금했던 집안 속사정을 알아보고 싶었고 만약 아버지와 베냐민이 살아 있다면 그들을 애굽으로 데려와 함께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정탐꾼으로 몰자 형들은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며 집안 내력을 설명했습니다.

(13)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십 이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14)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15)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16)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17)그들을 다 함께 삼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들 열 명 중 아홉은 그대로 옥에 갇혀 있고 한 명만 가나안 집에 가서 말째 아우를 데려오라고 하며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삼일이 지나 요셉은 형들에게 좀 더 완화된 제안을 내놓습니다.

열 명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 아홉이 곡식을 가지고 가서 우선 집 식구들의 굶주림을 모면하게 한 후 말째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18)삼일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19)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20)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의 배려에도 형들은 자신들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서로 터부시 하던 아우 요셉의 일을 끄집어 내면서 자신들이 아우 요셉에게 못할 짓을 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굽 총리가 히브리 말을 못하는 줄 알고 그 앞에서 자기네들끼리 말한 것입니다.

(21)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 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23)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의 대화를 들으며 형들도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악한 행동으로 인해 죄책감을 가지고 고통 받으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연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밖으로 나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애굽으로 팔려와서 총리가 되기까지 외롭고 힘들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을 것입니다.

요셉은 다시 형들에게 돌아와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다른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어 돌려보냅니다.

형들이 양식을 사기위해 가져온 돈은 도로 각자의 곡물 자루에 다시 넣어 주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절대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달리 방도가 없는지라 요셉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24)요셉이 그들을 떠나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25)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시므온을 볼모로 잡히고 곡식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설상가상 객점에서 그들 중 하나가 자루 안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배려해 일부러 한 일이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형들은 자신들이 이번에는 도둑으로 몰릴까봐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26)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27)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28)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시므온을 찾아 올 수 있고 양식도 계속해서 사올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특별히 큰 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두 아들까지 걸고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다고 했으나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내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36)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37)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38)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며 베냐민을 못 데려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월이 오래 걸리고 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닥쳐도 그 고난이나 고통을 초래하게 한 사람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무도 만질 수 없게 하시고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그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어 극복해내지 못할 고난과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